



시각예술가
조 현 익

예술인명	조현익	
소 개	조현익은 제도화된 종교에 공감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성스러움의 기억을 되살리도록 자극하는 것이 예술이 부여 받은 역할이라 여긴다. 그는 일상의 경험에서 비롯된 소소한 대상들의 성스러운 순간들을 포착하고 그것들을 종교적 상징성을 지닌 회화와 설치로 재구성한다.	
주 요 교육이력	2007.02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석사
	2004.08	세종대학교 예체능대학 회화과 학사
개 인 전	2020.11	<조형연구 프로젝트>, 원희캐슬 봉담 403, 화성, 경기(후원: 화성시문화재단)
	2018.07	<변모>, 서울시 창작공간 금천예술공장 PS333, 서울(후원: 서울문화재단)
	2017.12	<믿음의 도리 II>, 스페이스 엠, 서울(후원: 서울문화재단)
	2016.08	<믿음의 도리>, 인천아트플랫폼, 인천(후원: 인천문화재단)
단 체 전	2020.12	<The H Art Project-Neo Nomadism: 도시-농촌을 잇는 사유의 여정>, 동탄 장지 천6길 29, 화성, 경기
	2020.11	<화성예술플랫폼 아카이브展-화성, 유레카!>, 동탄아트스페이스, 화성, 경기
	2020.10	<온택트 아트경기>, 경기상상캠퍼스 디자인1978, 수원, 경기
	2019.11	<SIMA FARM>, 수원시립미술관, 수원, 경기
	2018.05	<밤을 잊은 별>,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충북
	2017.04	<표류하는 무의식>, 경기창작센터, 안산, 경기
	2017.01	<다중충돌-천애약비린>, 송장 화가촌 갤러리, 베이징, 중국
	2016.12	<산책자의 시선>, 경기도미술관, 안산, 경기
소 장	2020.08	<Fairway>, (재)경기문화재단, 수원, 경기
	2017.11	<Room With the Candlestick>,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과천, 경기
상 훈	2009.10	제4회 포스코 스틸아트 어워드 본선작가상, 포스코청암재단, 서울
	2005.10	제1회 경향미술대전 우수상, 경향신문사, 서울

프로젝트명 : <조형연구 프로젝트 *Visual Study Project*>, 2020

아티스트 스테이먼트(작가의 말)

주요 내용(요약)

본 프로젝트는 믿음과 종교(신앙)라 일컬어지는 것들에 대한 단상이자 새로운 가치 정립에 목표를 두며, 동시에 그와 같은 맥락의 연장선상이자 최근 작업 주제인 '육아 일기'를 통하여 해당 작품들의 당위성을 보여 준다. 이번 작품들은 본인의 현재 진행중인 일상 속 관찰과 육아의 경험을 토대로 그저 그런 육아 일기처럼 치부되기 쉬운 반복되는 현실과 일상을 예술가이자 아빠의 섬세한 발견을 거친 창작을 통하여 삶의 성스럽고도 숭고한 의미를 재발견하게 한다.

회화 작품 '만찬(가장 배부른 식사) 시리즈'는 3세 딸이 소꿉놀이용 장난감으로 아빠에게 차려준 아이의 밥상을 통하여 성스러운 의미를 상기시키며, 단순하고도 강렬한 원색의 장난감 고유의 색채가 주는 미묘한 미감을 통하여 조형성과 회화적 가능성을 깨닫게 된다.

'순교자-엄마와 아가' 시리즈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유아의 심리상태와 관심사를 관찰하고, 반복된 유아의 의미 부여와 놀이 행위로 인하여 비롯된 명을 다하거나 절단된 유명 장난감의 운명이나 생각지도 못한 기이한 포즈(제스처)를 포착하여 이콘(icon)화와도 같이 기념비화하였다. 이 작품은 유아가 인형이나 장난감 등의 명칭과 역할을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의인화하여 고유의 개별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놀이하는 일종의 상황극과 같은 연출의 패턴을 수개월에 걸쳐 관찰하고 촬영 및 녹음한 것에 기인하였다. 이들을 편집하여 주로 낯선 언어(의성어와 의태어 포함)의 사운드 효과와 함께 회화와 설치의 형태로 공감각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를 통하여 놀이가 파생하는 상징적 개념과 사회적 의미와 종교적 아우라를 체험한다.

이처럼 작가가 처해진 일상 속 시시각각의 신성하고도 세속적인 삶의 궤적이 창작에 의하여 뚜렷한 흔적으로 기록되고 남겨지는 자연스런 출현 과정을 공유하고자 한다. 평범한 한 가정의 부모로서의 일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대상에 관한 사유의 각별함은 마치 종교적 순교자들처럼 제의적 전시 효과를 통하여 관객에게 제공되며 결국 믿음과 도리, 종교와 신앙, 이념과 사상, 삶과 죽음,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들 모두는 우리들 마음이 빚어낸 산물이자 하나의 세계임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특히,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이라는 틀에서의 세부적인 일상이 하나의 종교가 된 순간들을 포착하고 삶에 관한 성스러운 의미를 저마다 되새겨 보기를 희망한다.



<조형연구 프로젝트전>, 원희캐슬봉담 403, 화성, 2020



<순교자-엄마와 아가 IV>, 나무, 아크릴채색, 수성페인트, 코르크판, LED 조명장치, 피규어, 감속
모터, MP3재생장치, 전선, 동작감지센서, 300×500×360cm, 2020



<조형연구 프로젝트전>, 원희캐슬봉담 403, 화성, 2020



<만찬(가장 배부른 식사) VI>, 캔버스에 아크릴 채색, 컬러 점토, 30.6×30.6cm, 2020

<만찬(가장 배부른 식사 시리즈)>, 캔버스에 아크릴 채색, 컬러 점토, 벽지, 나무, 시트지, 244×122×70cm, 2020



<만찬(가장 배부른 식사)>, 캔버스에 벽지 콜라주, UV 프린트, 45.5×37.9cm, 2020

프로젝트명 : <육아 일기 *Parenting Diary*>, 2018

아티스트 스테이먼트(작가의 말)

주요 내용(요약)

아이가 태어나고 나의 작업 주제도 그에 맞춰 자연스레 변화하고 있다. 혹자는 나에게 육아 일기를 쓴다고 말하곤 하는데 그 말을 부정하지 않고, 또한 동의하지도 않는다.

나는 특정한 종교를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종교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흔히 신성하다고 여겨지는 종교적인 것들과 지극히 세속적이고 개인적이라 여겨지는 것들 중에서 과연 내게 진정으로 의미 있고 성스러운 대상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작업에 임하고 있다. 종교와 믿음, 이념과 도리에 관한 사유를 바탕으로 공통되지만 다른 가치를 지닌 대상들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주로 고민과 사건, 현실들을 작업으로 끌어들여왔는데, 이는 무분별하고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일상 속 경험의 순간들을 재발견하고, 창작의 과정을 통하여 의문스러운 삶에 질서와 가치를 새롭게 부여하고자 함이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형인 육아의 경험은 새로운 작업의 근간이 되고, 하나의 종교와도 같다. 삶의 신성하고도 세속적인 궤적은 창작에 의하여 뚜렷한 흔적으로 남는다.

두 아이와 함께한 아파트 거실 속의 생활이 자연스런 삶의 터전이 되어 버린 지 오래 전 일이고, 그 소우주 안에서 하루에도 생각보다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수많은 장난감 더미에서 회화성과 조형성을 발견해내기도 하고, 갓 말을 하기 시작한 아이들의 언어에 신비로움을 느끼기도 한다. 유아용 약병의 기이한 마스코트에서 종교성을 감지하기도 하며, 한 번도 실체를 볼 수 없는 변신 로봇과 원시시대의 공룡은 어린 이용 TV와 장난감에 수도 없이 부활한다. 이번 전시는 가족이라는 틀에서의 세부적인 일상이 하나의 종교가 된 순간들을 포착하였다. 부모의 도리를 다하는 마음으로, 관찰자이자 발견자가 된 것처럼 삶에 관한 의미를 되새겨 본다.

세상의 어떤 대상이나 이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천차만별일 것이다. 모든 일들이 언제나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듯이 말이다. 그러나 비록 자신이 비종교적 인간이라고 여기는 사람일지라도 감추어진 형태로 남아 있는 현대의 신화나 의례에 의해 여전히 성스러움의 기억을 무의식 가운데 감추고 있다고 한 M. 엘리 아데의 말처럼 모든 인간은 종교적이다. 제도화된 종교에 공감하지 못하는 나를 포함한 현대인들에게 성스러움의 기억을 되살리도록 자극하는 것이 예술이 부여받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역할을 하고자 오늘도 난 숭고함과 비천함이 맞부딪히는 섬광을 좇고 있다.

최근의 작업들은 육아의 현실과 반복되는 일상의 순간들을 포착하여 성스러움을 드러낸다.



<육아 일기>,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8



마치 성모자상처럼 보이는 이 작품은 작가의 아내와 딸을 대상으로 한 유화 작업으로 가족이라는 틀에서의 세부적인 일상이 하나의 종교가 된 순간을 포착한다. 오늘날 전형적인 가족사진의 연출된 프레이밍 효과(미장센)와도 같은 작품 속 상황을 통하여 평범한 인간의 종교적 측면을 강조한다. 이 작업은 회화 작업 특정 부위에 특수 제작한 핀 조명의 조리개 모양의 빛 효과가 더해져 시각적 극대화와 함께 대상(피사체)의 극적 요소를 강조하였다.

**<믿음의 도리-탄생 Ⅲ
(Duty of Faith-Family
Photo Ⅲ)>**, 캔버스에 유채, 193.9×112.1cm,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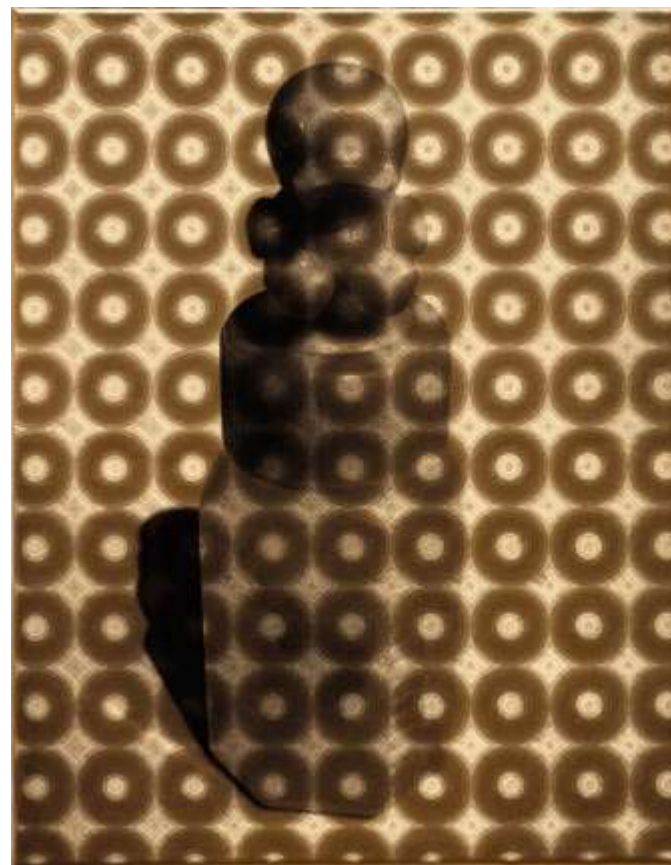
우리는 삶 속에서 벌어지는 단순한 행위를 그저 단순하게만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지 말아야 한다. 예술의 마술성은 유치하게 치부되는 일상의 삶 속에 이미 존재한다고 믿는다. 마치 어린 아이가 사소한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연스럽게 놀이를 하는 과정처럼 말이다.

<그림자놀이-공룡의 세계>, 모터, 조명장치, 동작감지센서, 전선, 공룡장난감, 나무, 전등커버, 가변크기,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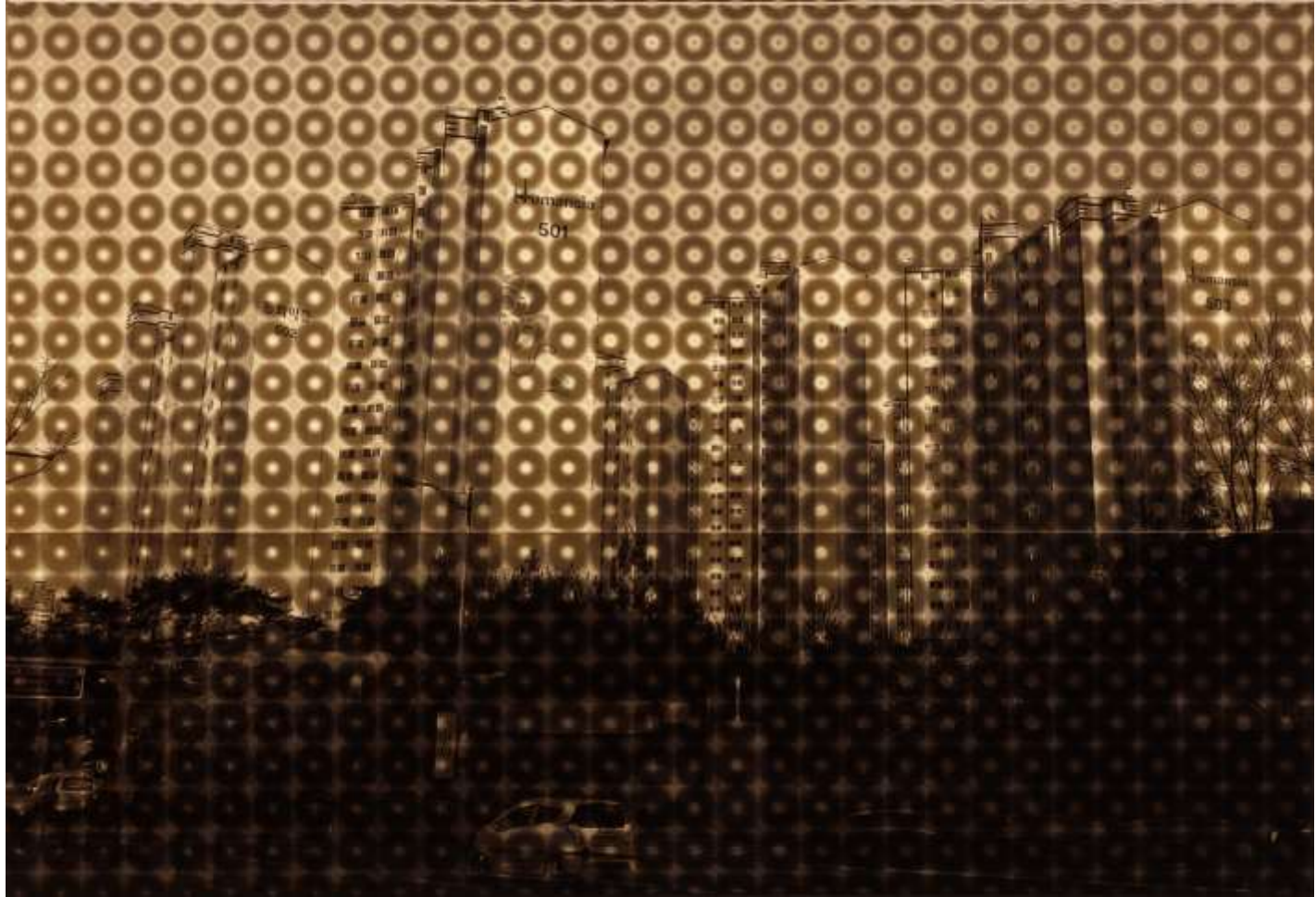
<약사여래불곰(藥師如來佛熊)(*Liquid Medicine Buddha Bear*)>, 캔버스에 벽지
콜라주, UV 프린트, 45.5×37.9cm, 2018

약사여래불이라 명명한 유아용 약병의 기이한 마스코트에서 종교성을 감지한다. 사물에 황금빛 물성을 결합하여 물성 자체가 가지는 힘에 오히려 상징성과 가치를 부여하고 그 안에서 확대된 이미지의 본질을 다시금 바라보게 만든다.



<약사여래불덕 II(藥師如來佛鴨 II)(*Liquid Medicine Buddha Duck II*)>, 캔버스에 벽지 콜라주, UV 프린트,
40.9×31.8cm, 2018

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휴먼시아(*Humansia*)라는 한 브랜드 네임의 아파트가 '휴먼시아거지=휴거'라는 비하 발언으로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오늘날 아파트 공화국이 된 서글픈 현실과 그 안에서조차도 내 집(보금자리) 마련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힘들고 괴리감이 느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포착하였다. 작품의 바탕을 실내 인테리어용으로 활용되는 황금빛 물성을 지닌 벽지의 직접적이고도 과도한 사용으로 오늘날 아파트 숲의 현실이 지니는 양면적 속성과 내 집의 본질을 다시금 재인식하게 만든다.



<휴먼시아(*Humansia*)>, 캔버스에 벽지 콜라주, UV 프린트, 80.3×116.8cm, 2018

프로젝트명 : <변모 *Metamorphosis*>, 2018

아티스트 스테이먼트(작가의 말)

주요 내용(요약)

Metamorphosis전의 작품들은 최근까지 본인이 지속적으로 연구하여온 성스러움이라 정의될 수 있는 대상들에 관한 진지한 사유를 바탕으로 지난 십 수 년 동안의 본인 작품의 변모의 과정을 관객과 공유하였다. 따라서 믿음과 종교(신앙)라 일컬어지는 것들에 대한 단상이자 가치 재정립에 목표를 두며, 동시에 그와 같은 주제로 지난 15년간의 작품 활동을 되돌아보면서 개최한 본인의 11번째 개인전과 관련한 준 회고전 형식의 특별전 성격으로 구성된 전시이다. 본 전시에는 관객들과 반드시 공유하고 싶은 본인의 시기별 대표 작품들과 신작들로 구성되었다. 전시 작품 구성은 본인의 작업 방식의 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었다.

- 1기(2003-2010년): 인간(주로 욕망의 대상)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배신으로부터 비롯된 심리적 상처를 투사한 여인의 초상을 철이라는 양가적 물질성과 결합시켜 우상화하거나 비극적인 도상의 여성성의 이미지를 조성, 이를 통하여 생과 사의 경계와 빛과 어둠의 상징성을 부여한 무의식적인 회화 작품들.

- 2기(2011-2013년): 제의적 의식을 행하는 것과 같은 종교 제단 형태의 공감각적인 회화, 무대장치와도 같은 설치 작업의 병행을 통해 빛과 어둠의 양면적 속성을 상징화한 작품들.

- 3기(2014-2015년): 일상 속 여행을 통한 기념품과 오브제들을 활용하여 성스러운 대상(신앙, 종교, 믿음, 사원 등)이 세속적인 대상의 가치와 전복되거나 충돌을 일으키는 지점을 포착하여 기념비화한 회화와 설치 작품들.

- 4기(2016년-2017년): 파운드 오브제인 종교 전단의 '믿음의 도리'라는 표제(글귀)의 진지한 사유를 바탕으로 파생한 믿음과 종교의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보여주는 회화, 설치 작품들.

- 5기(2017년-2018년): 가족을 구성한 삶 속에서 마주한 인식의 틀을 확장하고 고정관념을 탈피한 계획적, 의도적 프레이밍 효과의 회화, 사진, 설치 작품들.



<믿음의 도리-가족사진(*Duty of Faith-Family Photo*)>, 2016-2017,
캔버스에 유채, 벽지 콜라주,
동작감지센서, 모터, 쇠그릇, 숟가락,
고무줄, 나무_가변크기

<변모>, 금천예술공장 PS333, 서울, 2018

뉴욕 티벳 박물관의 사원 형태와 밀교를 모티브로 한 이 작품은 종교의 형식만을 차용한 지극히 개인적인 사원이다. 각종 싸구려 모조품과 수집된 오브제들로 짜집기하여 구성된 사원은 믿음과 종교의 적나라한 현실이자, 믿음과 종교의 맹목성과 본질에 관하여 사유하도록 만든다.



<사원(Temple)>, 황동판에 혼합재료, 나무패널, 벽지, 시트지, 인조화분, 전기촛불, 전선, 해외여행을 통해 수집된 각종 오브제들, MP3 음향장치, 275x300X400cm, 2014

<변모>, 금천예술공장 PS333, 서울, 2018





<변모>, 금천예술공장 PS333, 서울, 2018

태국 여행을 통해 구한 상반된 두 오브제들을 가지고 빛을 가하여 부처조각상 주위를 누드여인조각상이 기이한 소리를 내면서 회전하는 거대한 그림자를 통하여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도록 한 작업이다. 왕국(국가)의 자부심이 지니는 고유의 종교적 성스러움과 이 상향(관습이나 사회적 규율, 의식행위 등)에 반하는 묘한 접점, 즉 성과 속 사이의 충돌과 융합지점을 포착하려 한 작품이다.



<왕의 힘-성과 속(King Power-Sacred and Secular)>, 조각상, 조명장치, 모터, 사운드장치, 타공 철판, 황동, 전선, 나무, 전기촛불, 동작감지센서_가변크기, 2014

<변모>, 금천예술공장 PS333, 서울, 2018

당혹스러운 제의실은 현대성을 멀리 거슬러 올라가, 빛과 어둠이 대결하는 고딕적 분위기로 채워진다. 어두운 조명, 흔들리는 촛불, 거대한 창이나 단두대처럼 위에서 내려오는 육중한 철제 상들리에, 무겁게 깔리는 음악 등은 희열에서 죽음에 이르는 사랑의 단계들을 구현하는 여성의 도상과 함께 총체적으로 작동한다.



<변모>, 금천예술공장 PS333, 서울, 2018



<영원한 빛(*Eternal Light*)>, 황동판에 혼합 재료, 스크래치, 나무패널, 타공철판, 전기촛불, 전선, 240x200cm, 2015



<변모>, 금천예술공장 PS333, 서울, 2018

프로젝트명 : <믿음의 도리 *Duty of Faith*>, 2016

아티스트 스테이먼트(작가의 말)

주요 내용(요약)

우연히 아파트 입구의 우편함에 수없이 꽂혀있는 '믿음의 도리'라 적혀 있는 한 교회의 홍보 전단을 목격하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전단들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혹시나 해서 재활용 종이 쓰레기통을 뒤져보니 그 안에 모조리 들어가 있었다. 아파트 경비아저씨는 그저 이 전단들이 성가신 모양이다. 아니면 입주자들로 하여금 지저분한 전단을 목격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치워야 한다는 암묵적이고 강박적인 실천적 직업의식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것이다. 아마도 경비아저씨는 그것을 성스러운 믿음의 도리로 받아들였다기보다는 그저 도리를 지키지 않는 이 성스러운 법한 전단에 상스러움을 느낀 것 같다. 이 전단을 아파트의 모든 우편함에 가득 투입한 어떤 절실한 종교인은 분명히 믿음의 도리를 다한다는 믿음 즉 하늘(신)의 뜻에 부합하는 신념으로 조심스레 전단을 삽입했을지도 모른다. 그 종교인에게는 이 전단마저 신성한 매개물일 것이다. 이처럼 우편함에 가득 꽂힌 특정 종교의 전단을 매개로 믿음의 도리라는 글귀의 개념에 관한 진지한 사유가 시작되었다.

'믿음의 도리'라는 글귀의 '도리'란 단어는 국어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 정도로 상당히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사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의무' 혹은 '임무', '직무' 등으로 대체될 수 있는 'Duty'가 적당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도리란 짧은 단어에 주어진 개념은 결코 가볍지 않다. 오히려 무겁고 강압적이라 느껴질 정도이다.

전단은 믿는다면 도리를 지키라 하고 있다. 무교인 일반인 입장에서 이 글귀는 더욱 강압적으로 생각되어 폭력적이기까지 했다. 현관 문 앞에 광고물 부착금지라 써 붙여 놓았어도 어느 새 또 붙여진 여느 광고 전단의 질긴 인연처럼이나 짜증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는 순간이라 여겨진다. 심지어는 잘 살고 있는 나를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며 전단에 붙어있는 사탕 한 개와 인스턴트커피 한 봉으로 유혹하기도 한다. 결국 전단은 휴지조각이 되어 쓰레기통으로 향할 운명이겠지만, 세상 어디에서나 사람들은 도리를 지키며 사느라 이 시간도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우연한 순간 마주하게 된 이 한 종교의 전단에서 비롯된 도리란 단어는 과연 오늘날의 시대적, 사회적, 개인적 상황이 도리를 다하고 있는 것인가란 물음에 당면하게 만들었다. 오늘날 그 도리란 참으로 무거운 동시에 가벼울 수 있는 대상이다. 혹자에게는 성스러운 말씀 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자에게는 공허한 울림일 수도 있을 것이다. 복잡하고 다양해진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종교는 근본적 성격으로 성스러움과 신앙 이면에 세속적인 삶 자체가 주는 고단함과 버거움 속에서 이율배반적인 작용을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이러한 성스럽고도 세속적인 종교라는 형식을 빌려 작업을 진행하면서 종교 혹은 사회적 이념 등의 위상과 허상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세상의 어떤 같은 사물이나 이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천차만별일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언제나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듯이 말이다. 믿음의 도리란 단어가 적힌 전단이 내게 수많은 생각이 들게 했듯, 현 시대 상황에 맞는 이러한 공통되지만 다른 가치를 지닌 대상들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도리라는 단어에는 현시대의 여러 가지 사회적, 개인적 상황 등이 내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의 도리, 자식의 도리, 국가의 도리, 국민의 도리, 종교적 믿음의 도리 등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도리를 회화와 설치 작업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제시한다.



<믿음의 도리>, 철판에 혼합재료, 스크래치, 우레탄 페인트, 나무패널, 650x900cm(가변크기)(부분), 2016



믿음에 대한 의심 또는 회의는 종교적 신앙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흔히 학교에서 주는 상장이나 공직자의 임명장에 장식용으로 새겨진 봉황무늬가 내용 없이 텅 빈 금속판을 채우고 있는 이 작품은 국가적 권위나 국가가 주입해왔던 가치 즉 국가 이데올로기의 부재나 무의미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믿음의 도리-봉황>, 철판에 혼합재료, 스크래치, 우레탄 페인트, 나무패널, 244x244cm, 2016



우연히 납골함을 파는 가게 앞을 지났다. 난의 형상이나 학,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의 상징을 한 납골함이 뒤섞여서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죽는 순간 까지도 자신의 믿음 혹은 신앙에 따른 선택과 결과에 따라 각각 나뉘어서 처해질 운명이 적나라한 현실 같았다. 바쁜 삶 속에서 마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위 아래층의 모르는 이웃처럼, 자신의 납골함이 훗날 어떤 낯선 자와 죽어서 나란히 놓이게 될 운명을 모르는 것처럼, 인생은 부질없고 덧없기만 하다. 이러한 삶 속에서 과연 나와 우리는 어떤 믿음과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여전히 의문스럽기만 하다.

<믿음의 도리-납골함 II>, 철판에 혼합재료, 스크래치, 우레탄 페인트, 나무패널, 244x244cm,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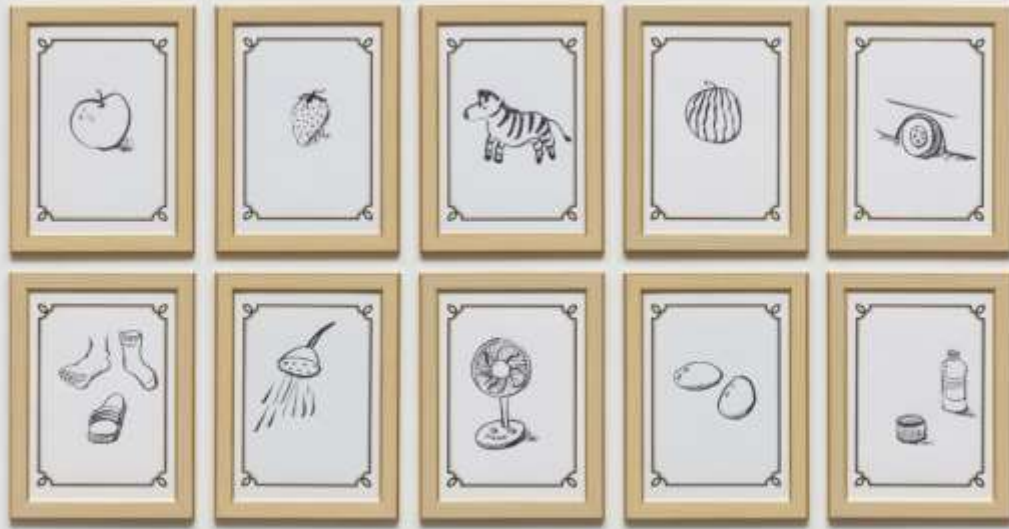
우연히 아파트 입구의 우편함에 수없이 꽂혀있는 '믿음의 도리'라 적혀 있는 한 종교의 홍보 전단을 목격하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전단들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혹시나 해서 재활용 종이 쓰레기통을 뒤져보니 그 안에 모조리 들어가 있었다. 이러한 전단에서 비롯된 도리란 단어는 과연 오늘날의 시대적, 사회적, 개인적 상황이 도리를 다하고 있는 것인가?란 물음에 당면하게 만들었다. 복잡다양해진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종교는 근본적 성격으로 성스러움과 신앙 이면에 세속적인 삶 자체가 주는 고단함과 버거움 속에서 이율배반적인 작용을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믿음의 도리-우편함>, 철판에 혼합재료, 스크래치, 우레탄 페인트, 나무패널, 122x122cm, 2015



파운드 오브제인 종교 전단의
'믿음의 다리'라는 표제(글귀)의
진지한 사유를 바탕으로 파생
한 믿음과 종교의 이데올로기
적 속성을 보여준다.

<믿음의 다리-전단>, 전단지, 벽지, 합판, 나무 액자, 55.5x47cm, 2015



믿음의 도리(날말 찾기 퍼즐: 찾기-아들을 위한 상장), 종이에 펜, 액자, 34.5x25.7cmx10pcs, 2016

육아의 현실에서 마주한 아이의 미숙한 언어는 작가로 하여금 모국어가 아닌 외래어 또는 외계어를 듣는 것과 같은 성스러운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아이의 발음을 통하여 특정한 이미지와 대상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 이상한 단어들을 수집하여 해당 단어들을 발음한 날짜를 봉황 이미지가 새겨진 상장의 형식에 기록하고, 아이에게 상장을 수여한 형식으로 제시한다. <날말찾기 퍼즐>은 아이가 발음한 단어들과 해당 이미지들을 각각 <날말>과 <찾기>의 형식으로 대비시켜 보여준다. 이러한 퍼즐 게임을 토대로 아이의 인식적 과정과 마찬가지로 말과 사물은 근접을 지향하지만 완전히 겹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잘못된 인식을 낳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미숙함은 착종되어 있는 말과 사물의 관계를 갱신할 수 희망이기도 하다.



믿음의 도리(날말 찾기 퍼즐: 날말-아들을 위한 상장), 종이에 펜, 액자, 34x25cmx10pcs, 2016



믿음의 도리-탄생 II, 황동판에
유채 및 혼합재료, 스크래치,
나무패널, 300X180cm, 2016



<믿음의 도리>, SIMA FARM전, 수원시립미술관, 수원, 2019

작품에 사용된 숟가락과 밥그릇은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작가가 아이 적에 사용한 것이다. 높은 천장에서 금줄로 내려오는 어릴 적 숟가락이 모터 장치에 의해 빙글빙글 돌고 있는 밥상 위의 그릇을 계속 내리친다. 지구가 자전을 하듯이 매일 삼시세끼를 해결해야 하는 인간에게 삶은 심각하다. 인간이 삶과 죽음의 문제, 즉 인간의 한계를 생각했을 때 종교가 탄생한 것이며, 이는 경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전시장 가득히 울려오는 숟가락이 밥그릇을 치는 소리는 '절의 풍경처럼 상여의 딸랑거리는 소리처럼, 천주교의 종소리처럼 듣는 이의 믿음에 따라 각기 다르게' 들려온다.

<엄마와 나-기도(My Mom and I Prayer),
감속모터, 동작감지센서, 전선, 나무, 벽지,
금속그릇, 고무줄, 숟가락, 가변크기_2016

<믿음의 도리>, SIMA FARM전, 수원시립미술관, 수원, 2019



<믿음의 도리>, 황동판에 혼합재료, 스크래치, 우레탄페인트, 나무패널, 벽지, 상자, 액자, 수집된 오브제들, 366x610cm(가변크기), 2016(Cre8tive Report전, OCI미술관, 서울, 2017)



파운드 오브제인 종교 전단의 '믿음의 도리'라는 표제(글귀)의 진지한 사유를 바탕으로 파생한 믿음과 종교의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보여준다.

<믿음의 도리>, 산책자의 시선전, 경기도미술관, 안산, 2016

주요전시 : <변모 Metamorphosis> 조현익 개인전



전시일정	2018. 07. 01 ~ 2018. 07. 15
전시장소	서울시 창작공간 금천예술공장 PS333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 15길)
전시소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연구하여온 성스러움으로 정의될 수 있는 대상들에 관한 사유를 바탕으로 지난 15년 동안의 본인 작품의 변모의 과정을 관객과 공유하는 준회고전 성격의 전시
영상링크	https://neolook.com/archives/20180703i

주요전시 : <변모 Metamorphosis> 조현익 개인전

전시 서문

주요 내용(요약)

2018년 7월에 열린 조현익의 11번째 개인전 metamorphosis는 스스로 10번의 전시를 되돌아봄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가늠해 보자는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 회고전적 성격을 가진다. 자신이 해왔던 작품들이라도 전시회를 통해 한번 맥락화됨으로써 빈 곳, 즉 미진한 부분과 새롭게 시작할 부분이 비로소 드러나기 마련이기에, 한 작가에게 전시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값비싼 검증행위인 셈이다. 그것은 머릿속으로만 진행할 수 없는 예술의 특징이다. 10번 정도 개인전을 치른 작가라면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계속 작업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막 40세를 넘긴 나이에 10번 이상의 개인전을 했으면 그동안 열심히 한 것이 아까워서라도 쉽게 그만두지 못한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지난 15년간의 작업 중에서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10년 동안의 작품들에서 골랐으며, 근래의 작품도 포함시켰다. 최근 작품에는 어린 아들이 '자유롭게' 찍은 사진들도 포함된다.

남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자신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들로부터 작업을 시작하고 키워나가는 방식은 사랑하는 여인이 화면 가득히 담겨있던 초창기 작품부터 발견된다. 예술은 나의 세계를 우리의 세계로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간의 발명품이다. 대형 설치작품을 포함하여 작은 소품까지 70여 점 되는 작품들의 배열은 많은 고민을 낳았을 것이다. 금천예술공장의 전시장은 결코 좁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설치작품을 포함한 70여 점의 작품을 한 번에 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가벽을 설치한 몇몇 구역은 그 자체가 하나의 개인전이라 할 만한 응집력을 가지고 연출되었다. 그러나 지난 개인전들을 그대로 옮겨온 것은 아니며, 지금의 관점으로 강약을 조절했다. 물론 현재 생각이 바뀌었다고 이전의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작가는 있는 그대로의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응시한다. 그의 작품은 에둘러가지 않고 직접 표현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 방식 때문에 스스로도 낯설게 다가오는 것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예술은 모든 것이 지나고 나서야 오는 것이니까.

(중략)

에로스(사랑)와 타나토스(죽음)의 연결을 강조하는 조현익의 작품 속 아이 또한 자신을 정립하기 위해 어머니/여성을 부정해야 한다. 정신분석학은 여성이 부정되고 죽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그것이 상징적 우주로서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오랜 세월 동안 남성으로 간주되어왔던)의 운명이기 때문이다. 알에서 깨어나는 초기 작업과 후기 작업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더구나 가족과 함께 밝은 모습으로 등장하는 작가로 변모시킨 이 또한 한 여성 아닌가. 그 점엔 전시실 초입에 제단의 형식으로 구현되어 있다. 이전 작업이 심각했다면, 요즘 작업은 가벼움을 포함한다. 특히 오브제가 적극적으로 도입되면서 가벼움이 많아졌다. 우리를 둘러싼 상품들은 최대한 가벼워지려고 한다. 조현익의 작품에 의하면 섹스에 관련된 사업이나 종교사업, 아이들의 장난감, 집 모든 것이 그렇다. 그러나 그의 작품에서 무게 중심은 언제나 있다. 작가는 변모라는 전시 개념을 통해서 십수 년간의 삶과 작업을 요약한다. - 사랑과 믿음을 위한 소망, 이선영(미술평론가), 2018 중에서 발췌

주요전시 : <SIMA FARM> 단체전



전시일정	2019. 11. 14 ~ 2020. 01. 12
전시장소	수원시립미술관(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33)
전시소개	수원, 화성, 오산 지역의 공모로 선발된 10인의 작가들과 함께 10회의 워크숍과 그룹전을 통하여 지역작가들을 새롭게 발굴하기 위한 수원시립미술관의 청년작가발굴 프로젝트이다.
영상링크	https://youtu.be/eay5HD4SL9E

주요전시 : <SIMA FARM> 단체전

전시 서문

주요 내용(요약)

(중략)

조현익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작업은 '성스러운 속성'에 대한 지속적인 사유의 결과들이다. 그러나 그의 작업은 동시대미술이 흔히 취하고 있는 방식, 즉 영성을 특정한 주제로 인식하고 연구하는 유형의 작업이 아니라 스스로를 경도시키는 무형의 속성에 대한 강렬한 매혹의 경험에서 시작하여 일상의 풍경 도처에 편재하는 영성 혹은 주술적 요소들에 대한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조현익의 그 열병은 이성에 대한 관음증적 집착에서 시작하여 종교적 신성의 구조로 확장되고, 다시 여행이나 일상의 풍경 속에서 발견한 신성의 속화된 형식들에 이어 마침내 육아를 병행하는 자신의 현재를 지배하는 자본주의적 구조에의 적용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면면히 이어지는 그의 작업적 특징은 그 대상을 멀리에서 찾지 않고 바로 여기에서 자신에게 행사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찾아나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상적 미학에 대한 작가적 취향에서 기인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일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체질적으로 갖고 있는 강렬한 의욕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도 있다. 자신의 정신을 지배하는 주된 관심사를 보다 에너지틱하게 대하려는 특유의 체질은 결국 그 대상의 일반적인 인식을 넘어 영성의 단계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열병이 믿음으로 승화되는 구조는 결국 작가 특유의 체질이 영성을 호출하는 사회적 구조로 확대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가 속해있는 이 사회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도처에 영성이 출몰하고 충돌하는 시대와 장소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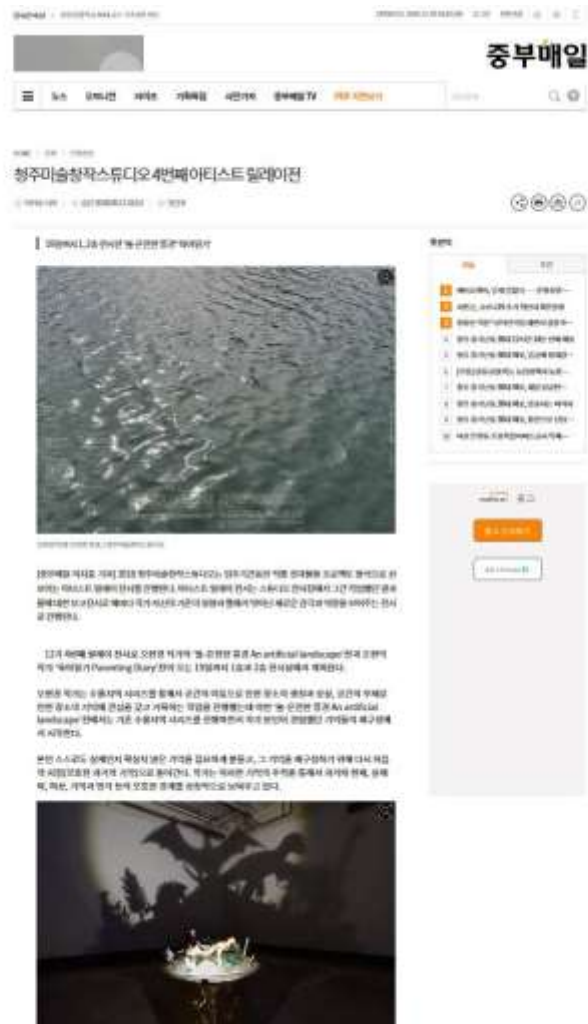
그러한 확대의 기전은 그의 작품의 형식적 특징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회화를 전공했고, 그것을 작업의 시작으로 삼고 있으나 그의 작업의 결과는 매번 복합매체를 이용한 설치의 형식으로 귀결되었다. 즉 이미지의 구현보다 그 이미지가 발산하는 속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일종의 구조를 구축하는 시도를 매번 보여 온 것이다.

'작가발굴프로젝트'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조현익은 이미 두툼한 이력을 쌓은 작가다. 그의 작업들은 직설적인 형식 속에 보편적인 이해의 틀을 초월하는 주제적 층위를 가져왔다. 그의 가장 최근의 작업은 이전의 것들에 비해 스스로가 처한 일상의 풍경을 보다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기도 하다. 그 일상은 다분히 동시대를 지배하는 자본에 의해 구획된 일상이기도 하다. 그러한 구획은 다양한 사람들의 일상을 놀라울 만큼 균질한 것으로 탈색시켜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뒤집어보면 그가 다루는 관심사들은 그만의 것이 아니라 대단히 많은 사람들도 공감하는 보편적인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보편성의 토대 위에서 앞으로 작가가 어떻게 그만의 특별한 의미구조를 시도할 것인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믿음으로 승화된 열병, 고원석(서울시립미술관 전시과장), 2019-20에서 발췌

* 2019-2020 수원시립미술관 작가발굴프로젝트 SIMA FARM 공동워크숍 일환으로 집필된 글입니다.

주요전시 :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4번째 아티스트 릴레이전>

언론보도 스크랩(2018.09.11 16:52,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2018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는 입주기간동안 작품 성과물을 프로젝트 형식으로 선보이는 아티스트 릴레이 전시를 진행한다. 아티스트 릴레이 전시는 스튜디오 전시장에서 그간 작업했던 결과물에 대한 보고전시로 해마다 작가 자신의 기존의 성향과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감각과 역량을 보여주는 전시로 진행된다.

12기 4번째 릴레이 전시로 오현경 작가의 '불-온전한 풍경 An artificial landscape'전과 조현익 작가 '육아일기 Parenting Diary'전이 오는 19일까지 1층과 2층 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조현익 작가는 개인의 일상적 경험에서 조우하는 특정 오브제가 지닌 상징성에서 읽혀지는 사회에 편재한 이중적 가치들의 역설을 회화 설치로 보여준다. 이번 '육아일기 Parenting Diary'전에서도 육아를 통해서 작가를 짓누르는 무게감의 물성과 뻗해 보이기까지 하는 직접적인 표현들로 삶의 무게를 지탱하던 대상들에 대한 믿음이 의심되고 깨졌을 때 가장 비천한 것으로 돌변하는 양극단 사이에 공존 하는 불분명한 경계들을 나열한다. 조 작가는 세종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리각미술관(2018), 인천아트플랫폼(2016)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고 OCI미술관(2016), 경기도 미술관(2016) 등 다수의 단체전을 통해 작품을 선보였다.

주요전시 : <자하미술관 '조현익 개인전'>

언론보도 스크랩(2011.06.27 13:24:27, cnb저널 제228호 김금영 기자)

문화경제 CNBJOURNAL

SPACE

경제·정치 | 문화·예술 | > 현재 기사

Home > > 전시내용

[미술계 뉴스]자하미술관 '조현익 개인전'

facebook twitter youtube

CNB저널 제228호 김금영 / 2011.06.27 13:24:27

자하미술관의 여성과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활용 빛과 어우러진 독특한 회화 기법을 사용하는 조현익의 개인전 '빛을 모으다-메두사의 방 전'을 7월 6~31일 연다. 이번 전시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2011 세마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의 선정 작가 전시이다. 2005년 첫 개인전에서부터 작가의 작업에는 늘 여성이 등장해왔다. 작가는 욕망의 시선 속 대상화된 여성의 이미지를 빛과 어둠 또는 에로스와 타나토스, 삶과 죽음의 이원성을 지닌 익숙하지만 낯선, 매혹적이고도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공포를 지닌 불가항력의 신성한 존재로 표현한다. 그리고 이 여성을 자연미와 인공미를 동시에 갖춘 철이란 물성에 직접적으로 대입해 새롭게 탄생시킨다. 작가가 직접 경험한 사랑과 상처의 경험 또한 이입돼 솔직하게 작업을 풀어내며 대리만족을 하기도 한다.

자하미술관의 여성과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활용 빛과 어우러진 독특한 회화 기법을 사용하는 조현익의 개인전 '빛을 모으다-메두사의 방 전'을 7월 6~31일 연다. 이번 전시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2011 세마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의 선정 작가 전시이다. 2005년 첫 개인전에서부터 작가의 작업에는 늘 여성이 등장해왔다. 작가는 욕망의 시선 속 대상화된 여성의 이미지를 빛과 어둠 또는 에로스와 타나토스, 삶과 죽음의 이원성을 지닌 익숙하지만 낯선, 매혹적이고도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공포를 지닌 불가항력의 신성한 존재로 표현한다. 그리고 이 여성을 자연미와 인공미를 동시에 갖춘 철이란 물성에 직접적으로 대입해 새롭게 탄생시킨다. 작가가 직접 경험한 사랑과 상처의 경험 또한 이입돼 솔직하게 작업을 풀어내며 대리만족을 하기도 한다.

▲ CNBJOURNAL, CNEJOURNAL, 지언버저널, 문화경제

자하미술관이 여성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철판 위에 빛과 어우러진 독특한 회화 기법을 사용하는 조현익의 개인전 '빛을 모으다-메두사의 방 전'을 7월 6~31일 연다. 이번 전시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2011 세마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의 선정 작가 전시이다. 2005년 첫 개인전에서부터 작가의 작업에는 늘 여성이 등장해왔다. 작가는 욕망의 시선 속 대상화된 여성의 이미지를 빛과 어둠 또는 에로스와 타나토스, 삶과 죽음의 이원성을 지닌 익숙하지만 낯선, 매혹적이고도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공포를 지닌 불가항력의 신성한 존재로 표현한다. 그리고 이 여성을 자연미와 인공미를 동시에 갖춘 철이란 물성에 직접적으로 대입해 새롭게 탄생시킨다. 작가가 직접 경험한 사랑과 상처의 경험 또한 이입돼 솔직하게 작업을 풀어내며 대리만족을 하기도 한다.